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군산시,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홍보활동 펼쳐

군산시가 전국적인 수학여행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체험, 음식, 숙박이 어우러진 안전하고 저렴한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고군산군도 내 어촌마을 갖별 체험, 자전거 여행, 스텝프루어, 생태문화탐방,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이 가능해졌으며, 시간여행마을의 한국관광의 별 수상

으로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해 수학여행지를 선택하는데 고민 중인 많은 학교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전국 교육청 및 초·중·고교 여행사에 적극 추천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는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의 시간여행마을과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는 당일코스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해 탐방하는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등이다.

이는 심화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대화·역사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저렴한 역사문화체험 수학여

행지일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역사탐방 지도사들의 전담해설이 연계돼 있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수학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군산의 역사문화를 다량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의회 출범식 개최

익산상공회의소 제23대 의회 출범에 따른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및 의회 출범식이 지난 20일 오후 3시에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지역상공인 및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는 장이었다.

이날 행사는 회장 인수인계식과 책임공로패와 취임기념패 증정 및 이·취임사와 주요기관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취임식과 동시에 상의 제23대 의회 출범식 행사를 겸해서 이루어졌다.

이임하는 전임 최병선 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지난 7년간 경제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데 협조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문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종합경제단체로서 상의가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전문경영인으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상공회의소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시민들 교통복지 실현”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 '무상버스 전면 실시' 공약

강성욱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무상버스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성욱 예비후보는 "무상버스 정책으로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 하겠다"며, "배낭 하나 맨 관광객이 군산을 맘껏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시민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군산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군산 시내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버스가 어떻게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고도 시민의 혈세는 매년 꼬박꼬박 보조금 형태로 100억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 노선 합리화와 배차간격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타고 싶어 하는 버스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순환 택시, 관광택시를 도입해서 교통소의 지역 혜택과 관광 서비스 개선 등 군산의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서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쇠폐하던 도시가 무상버스 도입 후 다시 활력을 찾고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도시로 변모한 사례는 유럽에선 이미 보기 드물지 않다. 우리나라도 신안군의 경우 무상버스 도입 후 지역민들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져 상가가 다시 들어서

고 병원과 약국 음식점 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며, "무상버스 도입은 교통복지의 실현 뿐 만 아니라 관광인구 유입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등을 통해 군산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예비후보는, "위기에 처한 군산이 선택할 수 있는 살아남기 위한 처방이기도 하다. 대중교통 만족도 최하위 전북의 현실 속에서 수익성 없는 버스사업에 의미 없는 보조금만 지원하는 현재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군산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과 군산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군산에서 무상버스는 단순히 공짜버스가 아니라 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며 동시에 군산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보건사업 안내 책자 모바일콘텐츠 제작

군산시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건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사업 안내 책자와 모바일콘텐츠를 제작했다.

안내책자에는 ▲보건소 현황 ▲민원업무 ▲생애주기별사업 ▲진료업무 ▲보건진료소 ▲진료소 안내 등 세부별로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보건사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 제작(https://gunsan.makev.me/2018)을 제작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도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24건 조례안·동의안 심사

익산시의회의가 21일 제208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익산시의회의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한 2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하고, 2017 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의 위상을 높인 동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향후 제8대 익산시의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협약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최근 군산고용노동지청과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는 군산 고용안정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취업연계지원사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센스네트워크 기반의 IoT(Internet of Things)융합 개발자과정이다.

군산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군산고용안정화 사업은 실직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재취업 전·이직,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

는 IoT융합 개발자과정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사물인터넷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향후 1년간 맞춤형 기술교육 및 취업상담·연계를 통해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이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의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도시농업 선도할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도시농업을 선도할 맞춤형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30명을 선발하고 22일 개강식을 개최한다.

개강식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진선섭 소장이 공기정화식물로 실내공기 바꿀까! 라는 주제로 생활원에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올 8월 23까지 매주 목요일 총 20회(8시간) 걸쳐 진행되며, 수료율 80%, 평가시험 80점 이상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을 발급받은 교육생들은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등 기

능상 이상의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전문가로 학교 텃밭강사 및 멘토링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도시농업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익산시 도시 농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라북도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중 9명이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기술보급과 이종보과장은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배출한 수료생 중 일부를 강사로 선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사로 선발된 윤지은(27, 여양동)씨는 "교육을 통해 농업을 새롭게 접하게 되었고 도시농업전문가로서 도시농업 이해, 작물재배기술, 프로그램 개발 등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일자리도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